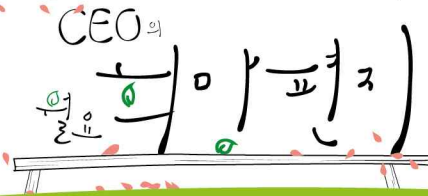


게시일 : 5월 2일

③ 5월 1주차



#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5월이 됩시다

2017. 05. 02. (화)

5월 첫날의 아침입니다.

5월은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 등 가족과 어른들을 생각하게 하는 기념일들이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도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고향 제주는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경로효친(敬老孝親)의 뿌리가 가장 깊이 내려있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마을 곳곳마다 효자(孝子), 효부(孝婦)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도 그 전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 서흥동에는 새해 설날 다음날엔 마을회관에 모여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행사를 합니다.

부모와 어른들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인사를 드리는 이런 문화가 오늘날 우리를 하나로 묶는 뿌리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 전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렇듯 어른공경과 가족사랑은 우리의 근본이며 삶의 원천입니다. 기독교 성경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으며 불교 경전에서도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면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사후에는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게 살다보니 부모님의 고마움, 가족의 고마움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아무 조건과 대가없이 주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임직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아침 출근 전. 부모님께 안부 인사는 드리고 출근하셨는지요?  
사랑하는 배우자와 곁에 있는 아이들을 가슴으로 한번 안아줘 보셨는지요?  
안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따뜻한 전화 한번 드려 보시지요.

매년 반복되는 5월의 기념일,  
남들도 다 하니 나도 선물하나 준비해야 하는 그런 기념일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과 어르신들 그리고 늘 함께 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가슴으로 맞이하는 가정의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올해는 특별히 가족들을 직접 안아주고 ‘사랑한다!’ ‘감사한다!’고 귓속말을 전합시다.  
조금은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하겠지만 가슴으로 감사하고, 가슴으로 사랑을 전합시다.  
아마도 오랜만에 자식을 품에 안아 보시는 부모님도  
어색한 아빠, 엄마 품에 안겨보는 아이들에게도 진한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저 또한  
우리 공사 임직원들을 가슴으로 사랑하고 노고에 감사 할 줄 아는 사장이 되겠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랑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 주십시오.  
그 힘으로 더 따뜻하고, 더 정감이 넘치는 조직을 만들어서  
제주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위대한 제주개발공사를 함께 만들어 가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달 5월!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한달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